

# 동부권 코로나 확산...인근 지자체 '초긴장'

순천·광양 10여일 만에 60여명 확진 '비상'  
해당 지역 출퇴근자 재택근무·동선파악 부심

전남 동부권 지역인 순천·광양·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인근 지자체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최초 감염원, 감염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확진자 등이 다수 발생해 보건당국도 초비상이다.

18일 순천시와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순천 A은행발 확진자를 시작으로 순천시는 10여일 만에 4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광양시도 순천 확진자와 접촉 이후 현재까지 2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시도 순천의 확진자가 여수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남 동부권의 코

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던 코로나19가 최근 비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조용한 전파'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일상 감염이라는 새로운 감

염양상과 늦춰지지 않는 감염 속도를 고려하면 매우 위태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이에 시민 여러분들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순천시도 브리핑을 통해 "순천시 보건소는 주요 동선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찾기 어려운 감염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확진자들의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 동부권에서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열, 기침, 오한 등 감

기 증상이 있으면 일상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동부권 3개 시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인접한 지자체들도 초긴장 상태다. 보성군의 경우 동부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순천·여수·광양 지역 출퇴근자 근무 명령을 시행했다. 이들에 대해 보성군은 출근 때 관내 거주 가능한 직원들은 물품을 준비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관불가

능한 직원 45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순천·여수·광양에서 거주하는 인원은 102명이며, 이 중에서 보성군 관내 거주가 가능한 직원은 57명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에 구례군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검토했었다"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원하지 않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동선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도 "출퇴근 직원 동선 파악 및 외출 자제 당부를 수시로 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연 기자



구례군이 숲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을 '사랑의 딸감'으로 만들어 소외계층에 나눠주고 있다. /구례군 제공

## 구례 '사랑의 딸감 나누기' 훈훈 숲가꾸기 부산물 소외계층 지원

구례군이 겨울을 앞두고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딸감 나누기'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례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55세대를 대상으로 딸감 420㎏을 지원할 계획이다. 딸감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함을 감안해 각 세대까지 직접 배달하고 있다. 사랑의 딸감은 숲가꾸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공공 산림 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현장에서 장작으로 만들었다. 숲가꾸기 부산물 수거는 산물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산림 경관 유지와 산림 병해충

예방 효과가 크다. 구례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사랑의 딸감 나누기 행사는 수해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딸감 나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산림자원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 곡성 심청상품권 운영 전수조사

곡성군이 이번 달 말까지 심청상품권 가맹점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곡성군은 심청상품권 가맹점 980개소에 대해 사업장 운영여부와 심청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폐업신고 이후에도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해지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로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이용자들의 혼선도 줄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희망 일자리 참여자들이 각 읍·면별로 심청상품권 가맹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여수서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 오늘부터 열린다

내달 2일까지 온라인으로...인·적성 무료 검사도

여수시가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남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정보제공 및 상담,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며, 성공작업 틀에서는 인·적성 검사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온라인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구직자들의 사전접수를 진행했으며, 행사 기간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 많은 기업과 여성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는 2008년부터 전남도와 여수시의 지원으로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일자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곽재명 기자

## 순천형 씨름 스포츠클럽 활성화 탄력

문체부 공모 선정 5년간 총 4억 지원 받아

순천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학교연계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순천형 씨름 스포츠클럽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순천형 씨름 스포츠클럽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매년 8,000만 원씩 5년간 지원받는다. 순천형 씨름 스포츠클럽은 씨름 종목 저변확대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팔마씨름장, 이수중학교 씨름장을 거점시설로 활용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씨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지도자를 채용해 여러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초·중·고체육 꿈나무연계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존의 학교운동부 선수육성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스포츠 인재 육성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합형 스포츠클럽, 씨름 스포츠클럽 2개소를 운영하게 됐으며, 스포츠클럽을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은 물론 평생체육 도시에 걸맞은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순천형 씨름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유소년씨름교실에서 회원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클릭! 고향 속으로



#### 김선광 (주)디에스팩 대표, 차(茶) 포장재 기탁

보성 향우인 (주)디에스팩 김선광 대표가 지난 17일 1,500만 원 상당의 차 포장재를 보성군에 기탁했다. 기탁된 차 포장재는 보성차생산지조합을 통해 차 가공업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선광 대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만든 차 포장재를 고향인 보성에 기탁하게 됐다"며 나눔

의 뜻을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보성군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디에스팩은 2016년 아시아 최초 오스넷 포장 인쇄기를 도입,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없는 식품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 여수 주삼동 자생단체, 농촌 봉사활동

여수시 주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협의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이 최근 수확철이 지났음에도 아직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독거어르신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삼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독거어르신의 농지 992㎡의 추수를 지원하고 벼 자루 포장 및 벼농사 마무리 정비를 함께했다.

한 어르신은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주삼동 김동욱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을 오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달려 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곽재명 기자



#### 국제와이즈멘 순천이수클럽, 연탄 나눔봉사

국제와이즈멘 순천이수클럽 회원 20여 명이 최근 상사면 기동마을 저소득층 세대에 연탄 400장을 직접 배달했다. 국제와이즈멘 순천이수클럽은 지난 9월에도 상사면에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하는 등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문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연탄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올 겨울은 아무 걱정없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조종현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과 베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